

침묵의 타블로

글. 강석호 (작가)

항상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역시’

나는 의미 없이 웃음을 머금었다.

그도 나를 보며 소리 없는 표정을 내 비쳤다.

그는 항상 옷깃을 목젓언저리까지 갖춰 입었다. 그는 평상시 차림새처럼 언행이 단호하며 때론 신중했다. 그런 그가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다. 요약하자면 어머니가 미인이시라는 것, 세 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고 엄격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며 그런 집안 분위기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덧붙여 말하기를 이번에 대학 못가면 군대에 간다고도 했다. 그는 몇 시간 째 얘기를 지속했고, 난 그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앉은 모습을 본적이 없다. 그날도 그의 대화방식은 단정히 차려 입은 옷매무새를 닮아있다. 그는 언제나 정갈한 남방과 조끼를 즐겨 입었다. 마치 사립초등학교 교복을 그의 어머니가 입혀 줬을 것만 같은 복장이었다. 그 모습이 흡사 모범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뒷모습은 책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개구쟁이 모습 그대로였다. 실제로 난 그의 지갑 안에서 그의 어릴 때 사진을 본적이 있었는데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육사생도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듯한 모습은 예상 밖의 귀여움이 있었다. 사진을 지갑에 왜 넣고 다니는지 나로써 이해불가지만 그것은 그의 어머니 작품인 듯싶다. 그랬던 그는 당신의 어머니가 측은하다고 했다. 젊으셨을 적엔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했다. 학교 내에서 꽤 주목받았지만 결혼을 한 이후로 그 사실을 잊은 채로 사신다고도 했다. 육군사관학교 학생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육사동기의 소개로 그의 어머니와 소개팅을 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는 말했다.

‘부럽다’

‘뭐가’

‘그냥’

뭐가 부럽다는 건지, 모르겠다.

한번은 그가 교실 교단 앞에 서서 공식 발표를 했다. 좌측 두 번째 줄, 앞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여학생에게 관심 있다고, 우리들은 방과 후에 남아 이 사건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여학생을 좋아한다고 꽤나 떠든 내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 친구는 학기 초부터 그 여학생에게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그녀에 대한 마음도 점점 커졌다. 이미 부풀대로 부푼 친구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그가 교단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세 명의 관계는 어느새 그녀의 움직임에 의해서 묘하게 흐르게 되었다. 내 친구 혼자 짝사랑을 했을 때 까지만 해도 별 주목을 못 받던 여학생은 그의 발표와 동시에 적어도 교실 안에서의 존재감이 급상승했다. 어쨌든 그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내 친구의 짝사랑이 더 길게 이어졌지만 그의 도발적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했었는지 알 수 없다.

팔짱을 낀 채로 내 이름을 불렀다.

‘상보야!’

‘왜’

‘답답해!, 변하고 싶어.’

난 그가 표현하려는 말의 뉘앙스로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엔 나의 사소한 행위가 그와 다름을, 나의 평상시 모습에서 어찌면 그는 일탈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건 옷 입는 방식에 별 관심이 없었던 엄연한 나의 실수다. 하지만 난 곧바로 단추를 바르게 채우질 않았다. 그 친구가 건넨 그 의미가 비웃음일지라도 나의 행동은 쉽게 변화되질 못했다. 그 후로 단추를 밑단부터 채우려는 습관이 생겼지만 지금도 간간히 옷을 뒤집어 입는다.